

I. 환경경영규정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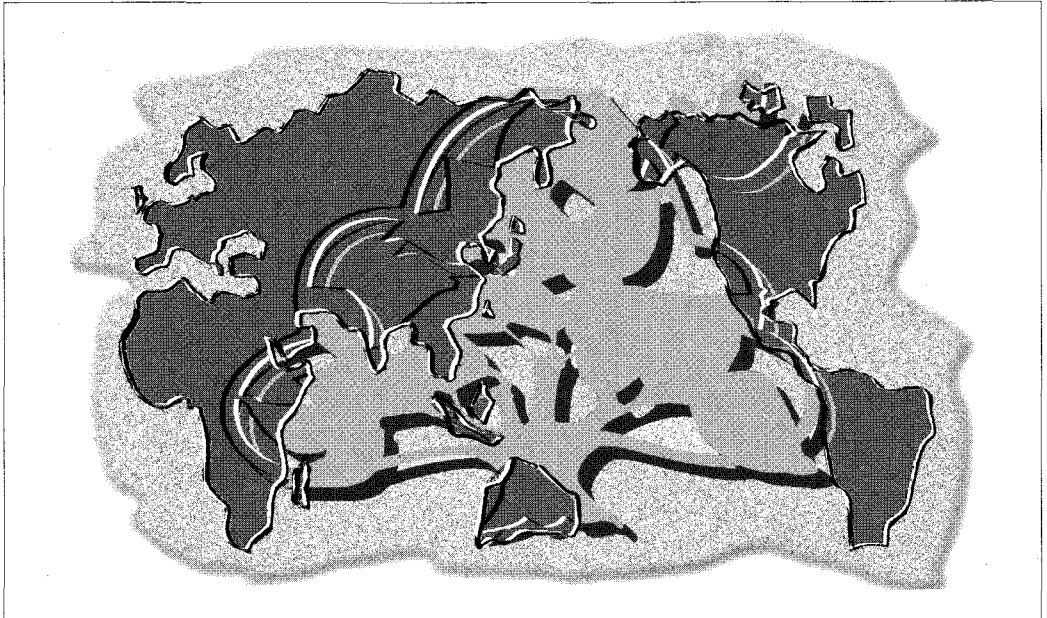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가 운용하는 ISO 14000시리즈는 환경경영규격(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s)이다.

ISO 14000 시리즈의 환경경영규정 작성 기법<I>

김오식
환경인권연구회 회장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ISO는 유엔산하기구가 아니고 1947년에 발족된 비정부간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O 시리즈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들이 무역규제의 일환으로 ISO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EU국가들이 중진국이나 후진국들의 값싼 생산품들을 그 나라의 규격으로 규제하게 되면 불공



정 행위로 규탄받게 되고, 유엔산하기구의 규격으로 규제하게 되면 다수의 저개발 유엔회원국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순수한 민간기구인 ISO의 규격에 맞는 상품만을 수출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중후진국으로부터 별다른 저항이나 견제를 받지 않고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ISO가 비록 민간기구라고 할지라도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중후진국들의 저수준규격을 채용할 리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진국들은 ISO를 앞세워 자신들의 책임은 뒤로 감춘 채 중후진국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걸터앉아 있는 한국으로서는 선진국처럼 이용하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ISO의 규격들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준수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품질관리측면에서나 환경관리측면 등에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MANAGEMENT」라는 단어를 관리(管理)로 번역하여 하찮게 여겨왔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미 상과대학에서는 「MANAGEMENT」라는 동일한 단어를 경영(經營) 내지 경영관리(經營管理)로 번역하여 단순한 관리활동 이상으로 격상시켜 놓고 있다. 단순한 관리는 하급관리자의 관리행위이지만, 경영관리는 적어도 경영층의 관리행위이다.

그러므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자 한다면, Environmental Management도 환경관리가 아니라 환경경영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중심의 경제전쟁시대가 된다.

환경마저도 관리의 대상을 뛰어 넘어 경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ISO 14000시리즈는 환경경영규격이다. ISO 14000시리즈에는

- ① ISO 14001류의 환경경영시스템
(EMS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② ISO 14010류의 환경감시사
(EA : Environmental Audit)
- ③ ISO 14020류의 환경라벨링(EL : Eco-Labeling)
- ④ ISO 14030류의 환경성과평가
(EPE :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 ⑤ ISO 14040류의 전과정평가

(LCA : Life Cycle Assessment)

- ⑥ ISO 14050류의 용어와 정의(Terms and Definition)
- ⑦ ISO 14060류의 제품의 환경성 기준

(EAPS : Environmental Aspects in Product Standards) 등이 있다. 그러나 1997년 6월까지 제정된 것은 ISO 14001(EMS 이용지침), ISO 14004(EMS 원칙), ISO 14010(EA의 일반원칙), ISO 14011(EA 순서) 및 ISO 14012(환경심사원의 자격) 등 6가지 뿐이다. 나머지는 2000년까지 제정될 예정이다.

ISO 14000시리즈가 모두 제정되어야 비로소 환경경영규격이 완성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제정된 안부의 규격이나마 전향적으로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절차가 바로 환경경영규정이며, 각기의 회사마다 정비하고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2. 필요성

경제사회의 주체인 기업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문제,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등의 환경문제해결에 참여 및 기여하여야 하고, 유한한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재순환 및 재이용의 프로세스를 개발하여야 하며, 사업활동을 혁신하거나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을 들여보자면, 다음과 같다.

- ① 자동차, 가전제품, 용기포장 등과 같이 제품사용 후의 제품폐기시에 까지 생산자의 책임배려 (Responsible care)가 요청되고 있다. 즉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만으로 내팽개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 ② 기업체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 시에는 환경친화성, 환경오염저감성 및 에너지절약성을 고려하고 있다.
- ③ 소비자의 제품선택시에도 내구성이나 디자인 못지않게 환경친화성과 환경오염저감성 및 에너지절약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④ 제품의 수출입이나 구매시에도 생산회사의 환경기준 준수여부나 ISO규격 인정여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체에 있어서도 환경을 보전하면서 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부담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환경보전과 기업발전을 병행 내지 양립시켜야 함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인류의 생존이 경제사회의 주체인 기업체의 환경보전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연유로 탄생될 것이 ISO 14000시리즈이다. 그러므로 기업체 스스로 ISO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고, 기업체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이는 21세기 기업의 준수사항 내지 21세기 사회의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3. 환경경영의 구축

1) 경영자의 의지

환경경영의 성공여부는 톱경영자의 사고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환경과 경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trade-off인 경우가 많으므로 얼마 동안은 Negative Cost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과 같은 불황기와 불경기에는 그 부담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현상은 국내적인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영자는 환경에 관한 국내적인 경향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이나 추세까지 부단히 파악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근거하여, Positive하고 Proactive한 사고방식으로서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으로 대처해나가야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기업이 지향해야 할 목적중에 환경보전이나 환경보호 및 환경친화성을 내포시켜야 하고, 기업활동에 동반하는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가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환경대책을 주식배당, 상품의 질, 코스트와 같은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두고서, 기업의 경영전략과 통합하고, 기업의 경영자원으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환경대책은 종업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경영시스템을 경영관리의 일환으로 하여 Top-down 및 Bottom-up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환경경영과 경영전략의 통합

기업경영에 있어서 Negative Cost를 그대로 계속하여 유지시켜서는 안된다. 생산원가를 Cost-down시켜야 하고, 기업체질을 강화시켜야 하며,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기업의 수명이라고 몇백년, 몇천년 이어가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기업경영이 도입된 이래, 30년이상으로 생존한 기업의 숫자비율은 평균하여 16%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1세대(30년) 이상의 일생(수명)을 갖는 기업이 100개중 16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처럼 기술혁명, 정보혁명의 시대에는 기업의 1세대이상 생존율이 더 저하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에너지의 절감,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저감, 리사이클, 환경부하의 저하 등은 환경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목적이므로 기업활동이나 프로세스 및 제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환경적응성을 높여야 하며 경제성과 효율성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이 ISO가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환경경영인 것이다.

효율성이란 공정이나 장치에 투입된 원재료나 에너지를 100%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환경경영에서는 환경으로의 물질 및 에너지의 배출을 가능한 0(Zero)으로 하는 Zero Emission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폐수나 폐가스 및 폐기물을 발생시킨 후에 처리하는 End of pipe(사후처리/배출구처리)의 처리개념이어서는 아니고, 연구개발과 제품설계 및 생산프로세스에서부터 원재료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않는 Clean production, Zero Emission, Recycling의 개념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생산공정에만 조사의 눈을 주어서는 아니고, 원료의 채취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Life Cycle에 걸쳐서 감시의 눈길을 주는 LCA(Life Cycle Assessment)적인

**기업의 경영자는 환경에 관한
국내적인 경향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이나 추세까지
부단히 파악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근거하여,
Positive하고 Proactive한
사고방식으로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으로
대처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기업이 지향해야 할
목적중에 환경보전이나
환경보호 및 환경친화성을
내포시켜야 하고, 기업활동에
동반하는 환경영향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가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접근기법이어야 한다.

또한 제품의 개발시에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기술의 기술영향평가와 그 제품의 사회환경적 /자연 환경적인 제품영향평가 등의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제품의 환경친화성(Environmental Friendliness)은 제품의 개발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기준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21세기초엽의 그린라운드 시대에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이 그 제품의 경쟁력과 시장성을 결정하게 된다.

근래의 산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환경친화적 접근기법들을 들어보자.

- 폐기물 발생의 저감화로 폐기물 처리비의 절감만이 아니라 처분지 확보난도 해결하고 매립에 수반되는 장래의 환경적 리스크도 저감시킨다.
- 자동차의 연비(燃比)를 10% 증가시켜 연료의 소모량을 저감시킴으로써 Crude oil의 정제처리에 따른 환경영향을 저하시키고 석유자원을 보전한다.
- 전기절약형의 Personal Computer를 개발하거나 절

전형의 가전제품류를 개발한다.

- 제품을 Compact(작고 오밀조밀한)하게 하여,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저하시키고 자원소비를 줄인다.
- 에너지 효율이 2배인 기계를 만든다거나, 특정의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특정의 대체 용제를 개발한다거나, 리사이클의 비율을 30% 상승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clean-up production이나 Recycling기술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 주는 환경보전기술이 아니라면, 환경 코스트를 내부화(內部化)하여 제품의 가격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제품은 국제 경쟁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톱경영자는 이해당사자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기업활동을 그 근간으로부터 환경친화적이 되도록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과 경제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환경과 경제가 양립하면서 상호보완하는 관계로 정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21세기의 기업경영은 기업과 경제와 개발이 환경친화적으로 결집되도록 하는 환경경영이어야 하는 것이다.

(3) 환경경영의 조직화

기업경영은 국경이 없을 정도로 세계화되어 무규제화로 치닫고 있지만, 환경기준과 인권기준 및 생명기준만이 그 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1990년대 후반에 서서히 출현하고 있는 환경라운드 즉 그린라운드이고, 현재는 블루라운드로 위장하고 있지만 2010년대 초반에 나타날 인권라운드(Human Rights Round)이며, 지금은 생명운동 또는 동물보호운동의 탈을 쓰고 있지만 2020년대초에 나타날 생명라운드(Life Round)이다.

이러한 무역규제는 바로 기업측면에서는 경영규제가 되게 되는 것이다. 경영규제는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고 기업이윤을 침탈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을 관리해 나가려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초월하여, 환경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환경에 대한 경영자의 패러다임(Paradigm /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어버렸다.

환경경영도 경영이므로 그 기업의 톱경영자가 사업활동과 제품 및 서비스의 전체 싸이클에 걸쳐서 미치게 되는 환경영향을 경영의 측면에서 감안하여야 하고, 환경에 연관되는 방침을 스스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침을 규정화하여 종업원에게 주지시키고 생활화시켜야 한다.

환경경영에 대하여 톱경영자가 결정한 기업방침에 따라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그 실행을 위한 기업내의 조직과 체제 및 절차를 정비하여 실행해가면서 시정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그 실행체계와 상황을 검사하기도 하면서 경영팀에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를 반복해가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 결과로서 환경경영의 수행능력이 향상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기업의 환경윤리가 정립되게 된다.

(4) 알권리 대비

환경경영은 종업원과 주민과 NGO(비정부조직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알권리의 대상이다.

알권리(Right-to know)는 국민과 공중의 기본권적 인권이긴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및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고취시켜 기업의 환경오염 행위를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의 환경처(US EPA)에서는 “당신의 알권리이기 때문이다.”(Because it is your right-to-know)라고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중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있다.

공중과 주민의 알권리가 선진국에서 신장되어도, 오늘날의 세계화 및 정보화의 시대에 한국에서는 무풍지대라고 억지부리지는 못한다. 기업의 환경활동이 알권리의 대상이라면 단순한 환경관리행위로서는 대처하기 어렵다.

보다 발전시켜 환경경영행위로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다. 환경경영이 주민과 NGO의 알권리의 대상이라면, 환경경영활동은 공개성(Openness)이 있어야 하

고 투명성(Transparency)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환경경영활동은 국제적인 환경경영규격(ISO 14000시리즈)을 준수하고 그 인정을 받아야 하며, 준수와 인정을 위한 세부적인 환경경영규정을 수립하여 기업경영의 방침으로 정립하고 안밖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업의 환경경영규정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검토·제시하여 나가기로 하자.